



제74회 식목일을 하루 앞둔 4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성환 전북도 의장,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숲은 새로운 미래, 100년의 시작

전북도 · 완주군 · 국립농업과학원 손잡고 2570그루 식재
혁신도시 미세먼지 · 악취저감 복합수림대 조성 '첫 삽'

전북도는 4일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도민, 혁신도시 입주기관, 공무원 등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이윤범 국립농업과학원장, 최규명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및 참여기관 임직원과 시민단체 등 350명이 참석해 국립농업과학원 부지 2ha에 아까시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2,570그루를 함께 심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함께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은 함께 희망을 심는 것으로, 숲은 새로운 미래 100년의 시작이며 그 시작은 오늘처럼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번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는 혁신도시 입주기관과 함께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북도, 완주군, 국립농업과학원이 손을 잡고 실시했다.

나무심기를 시작으로 전북도, 완주군,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은 협력하여 앞으로 3년간 호남고속도로 주변 부지에 2km 복합수림대를 조성하기로 했다.
복합수림대가 조성되면 혁신도시 지역의 미세먼지 및 악취, 소음 저감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철 열섬현상 완화 효과도 있다.
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식목일 행사를 기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데 앞장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고용노동부,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결정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열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고용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도와 군산시가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연장을 심의 끝에 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말 기준 군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1.38%로 전국 평균 증가율인 1.65%보다 낮아 정량적 연장 조건에 부합했고, 정성 요건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여건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지 않아 지원기간 연장이 꼭 필요함을 관계부처에 적극 설득한 것이 주요했다.
실제로 군산지역의 지난해 고용동향(출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군산시 고용률은 53.1%로서 전국 154개 시군 중 과천시(52.3%)에 이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업률은 3.2%로서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결정이 시민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시장의 호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로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도 제공

할 계획이다. 또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창업 희망기금 지원사업 등의 신규 사업과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개소로 소통 공간과 다각적인 창업활동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기반시설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사업인 훈련연장급여, 생활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근로자와 실직자 및 사업주를 위한 지원사업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지속 지원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1년동안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정연장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고 고용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군산=김정훈 기자

광역지자체 최초 도입 전북투어패스, 관광혁신 수범사례로 각광

국가관광전략회의서 전북관광 추진전략 반영
진안 국립지석묘관광단지 · 군산 기차여행 등 사업 확충
잡채 관광지 발굴 · 강소형 관광스타트업 창업 성장 지원

지난 2일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관광현장인 인천 송도 경원재에서 현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총리·장관 등 중앙정부, 16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관광업계 종사자 등 150여명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 보고, 민간 벤처기업 및 지자체의 사례발표, 참가자 발언 및 관계부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동안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자원으로는 세계 관광시장의 변화와 국내외 관광객의 변화된 수요에 부응하여 관광대국으로 도약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혁신, 콘텐츠 혁신, 산업혁신 그리고 관광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2022년까지 외래관광객 수요를 2300만명, 관광산업일자리 96만명 목표로 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회의안건 진행 중에 광역지자체 최

초로 도입한 전북투어패스가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분산효과,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경쟁력 강화 등 측면에서 관광혁신의 수범사례로 소개된 것으로 전해져, 추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그동안 지난해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2018. 7.11)시 거론된 각 부처별 사업내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이후 중앙부처에 주요현안 추가 반영 등 수시 건의해 왔는데, 이번 회의안건에 다소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전북관광 추진전략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입장이다.
반영된 사업은 산림 생태관광 체험형 프로그램 확충 사업으로 지리산 덕유산 권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국립지석묘관광단지 유점 조성(진안), 지역체험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확충으로 주민주도형 콘텐츠 개발(김제), 기차여행 지역연계프로그램 개발(군산), 코리아 브로드웨이 조성 사업으로 전

주 국제영화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군산지역은 마리나형의 레저 체험교육, 창업지원 시설을 갖춘 사계절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포함되어 있어, 기존 해양관광자원과 연계 특화가 가능하고, 도심권내 근대문화자원과도 연계할 경우 체류형 여행지 조성에도 기여해 관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창업 관광스타트업을 2022년까지 100개를 발굴하여 예비창업, 창업초기, 관광벤처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사업화 자금 확대도 관광벤처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으로, 잠재력이 있는 관광스타트업을 강소형 관광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및 콘텐츠 활용 확대방안에 대응해서, 전북도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관광콘텐츠(홀로그램, VR 등)개발과 문화재 활용 4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스포츠의 생활화, 일상의 스포츠화

전북체육회,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 어르신체육활동 등 기금사업 추진

운동하기 쉬운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다양한 기금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와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사업,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사업 등 기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의 체육복지 수요증대에 부응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다.
먼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는 '청소년 1인1체육'을 모토로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학생들의 체력강화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운동 지도자(강사)가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것으로 학교 안 프로그램은 축구와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진행되는 데 올해에는 187개교(초·중·고)에서 진행된다.
학교 밖 프로그램은 각 시군체육회와 스포츠클럽에서 이뤄지는 데 볼링과 수영, 승마, 골프 등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종목으로 구성된다.
휴일이나 방과 후 학교체육시설을 도민들에게 개방, 생활체육 참여를



지난 4일 전북체육회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관계자 회의를 실시했다.

을 높이기 위해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단순히 체육관만 개방하는 것이 아닌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관리매니저를 배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활체육 비참여자와 초보자 육성을 위해 강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 이벤트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생활체육과 체력관리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이뤄지는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올해는 정음과 김제, 완주, 장수 등

도내 8개 시·군의 노인정과 복지관에서 이뤄지며,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이다.
올바른 지도와 관리를 위해 어르신 전담지도자와 보조지도자가 현장에 배치된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스포츠의 생활화, 일상의 스포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